

김필식 동강학원·해인학원 이사장 영결식 엄수

“어머니 리더십으로 동신대·지역 발전 이끈 참 어른”
지방대 경쟁력 강화·나눔 확산...교육·사회발전 헌신

김필식 동강학원·해인학원 이사장의 영결식이 18일 오전 10시 동신대학교 동강홀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동강·해인학원 관계자와 교직원, 학생, 지역사회 인사 등 7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묵념을 시작으로 전진 동신대학교 교학부총장의 약력 소개, 영결사와 추도사·조사, 추모영상 상영, 유족 인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참된 스승이자 대학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품었던 ‘어머니 같은 이사장’, 지역사회 나눔과 문화 발전에 앞장섰던 큰 어른의 삶을 되돌아보며 애도했다.

이병훈 장례위원장(전 국회의원)은 고인을 “한없이 다정하면서도 대단한 열정과 강인함을 지닌 분”이라고 회고했다.

이 위원장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학교와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놓지 않고 대학을 성장시켰으며, 지역사회의 큰 어른이자 교육계의 큰 별로 우뚝 섰다”고 추모했다.

이어 “오늘날 동신대학교와 동신중·고, 동신여중·여고의 눈부신 성장은 고인의 다정한 성품과 강인한 의지, 세심한 손길이 정성 들어 만들어낸 산물”이라며 “이사장님의 값진 노력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하 학교들의 무궁한 발전을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여러분과 함께여



김필식 동강학원·해인학원 이사장의 영결식이 18일 오전 10시 동신대학교 동강홀에서 엄수됐다.

사진제공=동신대학교

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한 뒤 “저희도 이사장님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추모영상에는 학생들을 누구보다 아꼈던 김 이사장의 교육철학과 동신대학교

발전을 위해 걸어온 발자취가 담겼다.

지난 14일 향년 83세로 별세한 김 이사장은 제6·7대 동신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해인학원·동강학원 이사장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과 대학 발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했다.

2002년 학교법인 해인학원 이사장에

취임한 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동신대학교 총장을 맡았다. 재임 기간 동신대는 ‘잘 가르치는 대학 ACE사업’을 비롯해 프라인사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등 대형 국제사업을 수행하며 교육 경쟁력

을 높였다.

광주여고와 서울대학교 농가정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88년부터 2008년까지 동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2011년부터는 동신중·고와 동신여중·여고의 학교법인인 동강학원 이사장을 맡았으며, 2018년부터 동신대학교 학교법인 해인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등 교육 발전에 힘썼다.

교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청조근정훈장과 국민훈장 동백장, 무등여성대상, 대한적십자사 광무장 금장, 대한민국을 빛낸 호남인상 등을 받았다.

영결식을 마친 고인은 동신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지역사회 인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정든 캠퍼스를 떠났다.

장지는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선영이다. 김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광주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경찰청

광주경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 관리 10월 30일까지 시설 점검·법규 위반 단속

광주경찰이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관리에 나선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지청경찰위원회는 오는 10월 30일까지 11주간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개학 이후 본격화되는 어린이들의 등·하교에 따라, 늘어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와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우선 개학 전 경찰과 지자체, 학교, 학부도,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일제히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신호기와 횡단보도,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전반이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개학 이후에는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156개교 가운데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19개교를 중점 관리 학교

로 선정해 교통경찰 등을 집중 배치한다. 나머지 초등학교에는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를 배치해 통학로 안전 확보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주간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비롯해 신호위반,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한다. 경찰은 지자체와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통학버스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학교와 협력단체 등과 함께 등·하교 시간대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을 실시해 보행 안전수칙을 알릴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차세대 전통예술 인재 발굴·양성 ‘국악 저변 확대’

제25회 대한민국 빛고을기악대제전 ‘성료’ 명인부 종합대상 백은선...전야제 공연도

한국전통예술산조진흥원(이사장 황승욱)은 ‘제25회 대한민국 빛고을기악대제전’ 본선 및 결선 경연이 최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빛고을기악대제전은 전통예술인들의 기악과 병창 분야 기량을 겨루고, 전통음악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국악 경연대회다. 대회는 관악·현악·가야금병창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명인부 종합대상 수상자에게 대통령상이 수여된다. 올해 대회는 지난 15일 예선을 시작으로 16일 본선과 결선 경연이 이어졌다. 명인부 종합대상인 대

통령상에는 백은선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부수석이 이름을 올렸다.

빛고을기악대제전 대통령상은 제21회 한창희, 제22회 김윤희, 제23회 김한성, 제24회 지현아 등이 수상한 바 있다. 백은선은 이번 수상으로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들의 뒤를 이어 대회 명인부 종합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대회에 앞서 지난 14일 오후 6시에는 광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전야제 공연 ‘빛고을 기악, 새로운 울림’이 진행됐다.

황승욱 한국산조아사장은 “앞으로도 산조를 조망하기 위해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을 통해 명인과 신진 예술인



한국전통예술산조진흥원(이사장 황승욱)은 ‘제25회 대한민국 빛고을기악대제전’ 본선 및 결선 경연이 최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함께하는 경연 및 공연으로 차세대 전통예술 인재를 발굴·양성에 국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25회 대한민국 빛고을기악대

제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와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산조진흥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산조진흥원이 주관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광양사랑상품권 구매 릴레이 기업들 동참

시, 연말까지 100억 판매 목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민선 9기 ‘광양경제대전환’ 시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광양사랑상품권 구매 릴레이에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민선 9기 들어 처음 추진하는 광양사랑상품권 구매 릴레이에 최근 ㈜디와이(대표 이광웅)가 1900만원, ㈜승림건설(대표 양승근)이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구매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태운(대표 유성중)

이 5000만원, ㈜아르고마린토탈(대표 이권익) 2750만원, ㈜신진기업(대표이사 김운철) 210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이에 따라 누적 광양사랑상품권 구매는 5개 기업에 1억275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광웅 디와이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경제에 힘을 보탬 수 있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해 동참해 주시는 기업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기업의 참여가 지역소비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다시 지역경제와 기업의 성장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최근 시청에서 ㈜디와이, ㈜승림건설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 구매 릴레이 동참식을 가졌다.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황태환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해 광양사랑상품권 구매에 동참해주

신 기업 대표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소상공인들도 더욱 친절한 서비스와 좋은 상품으로 기업과 시민들의 마음에 보답 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자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어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진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품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물레나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7월 7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쥐 48년생 쉽게 매들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
60년생 빛 독촉으로 상심하게 된다
72년생 노력을 닦은 결실이 맺어진다
84년생 넓은 마음으로 사람 대하자
96년생 뜻하지 않던 보너스를 받을 운세
토끼 51년생 중요한 결정은 피하는 것이 낫겠다
63년생 주위가 매우 어수선하겠다
75년생 손해 보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라
87년생 마음은 하나인데 생각은 변화무쌍
99년생 애정وني 하라하니 서두르지 마라
말 54년생 결국 소문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66년생 원정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보자
78년생 업무에 잔심수를 많이 하게 된다
90년생 사랑이 충만한 하루

돼지 57년생 다른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음을 알자
69년생 판도 크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될 것
81년생 무조건 따라 가는 일 없도록 하라
93년생 옛것 버리고 새것을 선택할 때

소 49년생 중복되는 일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
61년생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날
73년생 차근차근 생각하면 반드시 성사 될 것
85년생 수고로움이 보인다
97년생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

송 52년생 손재운이 따르니 재물 관리를 잘하라
64년생 깊이 아니면 가치를 말라
76년생 불필요한 만남의 자리를 피하라
88년생 만사가 뜻과 같이 펼쳐진다

양 55년생 경험에 비해 판단한다면 틀림 없겠다
67년생 출렁이면 길하고 이익 생기는 날
79년생 사기 당할 우려 있으니 웅대하지 말라
91년생 풀리지 않고 문제만 일어 날 것

개 58년생 귀하지한 자만한다면 잃는다
70년생 말 무시하지 말고 조언 받아들이자
82년생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길한 시기
94년생 성숙한 관계로 이끄는 것이 이익

호랑이 50년생 귀 하고 지내야만 마음이 편해진다
62년생 조용히 덮어 두는 것이 좋을 것
74년생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것
86년생 손을 참부로 쓰지 말라
98년생 새 모습으로 과감하게 바꿀 필요 있다

뱀 53년생 과감하게 청산함이 유익할 것
65년생 주머니가 묵직하면 마음 가깝다
77년생 상대를 비방하지 말라
89년생 술과 밥이 생기는 좋은 시기

원숭이 56년생 경색국면으로 접어드는 기세가 역력
68년생 문제 없는데 주변에서 반대가 심하다
80년생 빈틈없는 계획 수립이 성공 여부 관건
92년생 친구로 인한 우울한 심정에 빠지리라

돼지 59년생 예상되는 경쟁에 미리미리 대비
71년생 미래 지향적 생각으로 판단
83년생 전면적으로 조처해야 할 때가 도래
95년생 여행을 떠나면 귀인을 만날 것